

# 고은 불교대하소설



섬에 주둔하는 일이 오래 계속될지도 모 르니 군량(軍糧)도 대는 일을 잘 생각해 보도록...

인담은 대해와 함께 때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 뒤에서 수군 여럿이 거북 배를 저어 본섬에서 무욕도로 향하고 있었다. 거의 함께 섬의 신장에게 내렸다.

수군 병졸들이 도랑 위쪽에 군막을 치고 있었다. 목자 사나운 방졸들이었다.

그때 우녀가 인담 대해를 맞이하려는 듯이 나타났는데 한 녀석으로부터 걸죽한 협담을 들었다.

"아니... 아직도 뽕개나 더운 계집이 이런 섬에 처박혀 무슨 수도를 한답시고

도의 세상인 것이야 바다 속의 고기새끼도 바다 밖의 굼벵이도 다 아는 일... 그런 바다가 어디 거칠기만 하던가? 바다 공덕 함부로 함어내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 한 마디에 그 간부가 움찔하였다.

"앞으로 이곳의 여러 도인들께 케를 끼치지 않겠소이다."

"정녕 그래졌지"라고 우녀는 솟새 반 말을 놓았다. 조금도 우자함이 없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기는 커녕 우녀의 눈이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어서 건너가보구려... 지금 저 배에 탄 어른이 누워있을 것이나..."

"무슨 말이오"라고 간부가 본섬 쪽을



## 효영과 명오 떠나다

눈을 자국이 갈았다 뺨다 하고 내송이여...

"하기야... 여기라도 방향이 달린 짐승이 뽕개 있으니 번갈아가며 감항소리로 밤을 새울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런 계집보다 더 병쟁한 것이 풀이나 있으니... 이제부터 그것들은 우리가 차지할까..."

쳐다보았다.

그들은 군막안을 쳐놓은채 일단 거북배를 끌어 파도 위에 띄웠다. 하지만 파도는 아직 순해지지 않아서 거칠었고 거북배는 팔내 본섬 가까이 가서 툭툭 뒤집히고 말았다.

거기에 타고 있는 간부와 병졸 넷이 뽕방 파도속에 파신을 가가스로 뒤집힌 배에 몸을 의지하며 헤엄치고 있었다.

과연 본섬의 사령은 우녀의 말 그대로 갑자기 가슴이 아픈 협심증세로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가까스로 그 본섬에 오른 병졸들은 그들의 상사가 섬의 여인이 말한 그대로 누워있는 사실에 사투 놀라지

**선** 장삼은 그대로 사람의 사신을 둔 채였고 선장삼 밖에서 배의 항로를 조정하게 되었다.

이 사후선이 멀리 북쪽 바다 수령선의 뜰날파도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무욕도에서는 우녀와 인담들이 그 배를

무의식 가운데서 물이 풀포를 만들어 흐르듯이 그녀 자신도 어쩔 수 없게 나온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상태의 예지를 무의식으로도 잘 다스려야 하였다.

인담은 그의 도반으로서의 우녀를 자극히 받드는 마음을 갖추고 있다. 어떤 때는 도반이라기보다 그녀가 스승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런 도반에게 긴요한 것이 평상(平常) 그것이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그런 평상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저 운판(雲板)을 치면 밤 먹으라는 소리인가보다 하고 큰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것 말이다.

물론 무욕도의 저녁은 밤이 없다. 오후

으나 사람의 얼굴이 없는 느낌이었다.

밤에는 으레 그렇듯이 아무도 말리거나 물리칠 수 없는 과도소리가 한층 커진다. 처음에 이 섬에 와서 자는 사람은 도무지 아무도 달랠수 없는 과도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지친 몸이거나 여러 곳을 거치는 동인의 수고가 많은 몸이지만 이 섬의 동서남북을 가득채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과도소리에는 장차 그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단련을 받아야 하였다.

그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언제 사후선 수군 병졸 따위가 들어오는지 그들의 군막이 쳐져서 저 위쪽에서 팔려대고 있는 것까지도 그저 과도소리의 커다란 무덤 안에 들어있음이었다.

**수** 군도 굳이 무반(武班)으로서의 양면에 속하는 것이지만 육군의 간부급과는 달리 팔도사나 그림의 장교 그리고 조선의 사령을 제외하면 상인(商人)들이었다.

심지어는 근본을 모르는 천인(天人)이 배를 움직이는 실정이었다.

무욕도에 올라선 사후선은 본디 포도섬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수목이나 역적이 발흥하는 때인지라 수군 쪽에서 징발한 상태여서 그 수군들은 포교나 포졸과 같은 교활함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위가 목자 사냥고 활한 인상이었다.

팔보장수는 계속 거들먹였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사람의 위세에 걸로 태연한 것만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 두마디 덧붙였다.

"... 소인들은 다만 공부하여 국토와 인심을 청정하게 하는 일로 뜻을 삼아 수선(修身)에만 열중하고 있었는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인가?"

"마땅히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소인들의 공부를 당분간 그만두더라도 나라들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호음..."

팔보장수 뒤에 서있던 사후선 사람이 선장삼으로 들어갔다.

팔보장수가 그만 다그쳐도 되겠다는 상사의 뜻을 알아차려 말투를 한층 부드럽게 하였다.

"보다시피 이 사후선은 서해 일대에서 어떤 괴변이라도 일거에 진압하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있지. 앞으로 그대로 우리의 일에 호응하여 이 일대의 배들이나 섬에 오고가는 자들의 동태를 잘 살펴주도록 하기 바라네. 그리고 우리 수군이 이

## 수군들이 수군거렸다 함부로 섬의 도인들을 건드려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 "저 배에만 송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녀가 슬픈듯 내뱉었다

졌다. 병졸이 그 물을 뒤집어 썼다.

그때였다. 우녀가 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지금 이 시각에 네 애비가 숨졌단 말이다. 이로부터 너는 상중(喪中)에 있는 몸이니 네 몸의 주동이에 상탈을 담은 일이 불효막심일 터이다... 삼가할 일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졸은 아랫도리에 힘이 솟 빠져나가며 주저앉았다.

"불쌍한 것 같으니라구"라고 우녀가 돌아서는데 저쪽에서 그때까지의 동정을 살펴 고 있었는지 그들이 쳐놓은 군막 안에서 사간부가 내려왔다.

"도인을 불러보았소이다... 우리 병졸들이 바다 위에서만 살아온지라 좀 거칠어서..."

"바다라고 하셨는가? 바다가 이렇게 파

않을 수 없었다.

기어이 그 사람은 숨지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사후선은 무욕도에 군막을 치고 임시로 주둔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바로 강화도 수군 진영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수군들이 수군거렸다. 함부로 섬의 도인들을 건드려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섬의 귀신이 진노한 까닭으로 우무머리가 어이없이 죽게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런 겁 없이 이 섬 저 섬을 마구 분탕질하던 그들인지라 저마다 몸이 오싹하는 불인과 공포 가운데 있어야 하였다.

"술 남은 것 없나?"라고 무욕도에 건너 갔다 온 간부가 그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다.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대해는 그때야야 팔뚝을 걸어부치고 나서 "내가 이 벌레 한마리 죽이지 않는 문 중에 들어온 몸이 아니라면 녀석들 대어 섯들은 다 비웃음에 내던져 혼구멍을 내주고 떠나버리면 되었을 터인데..."라고 땅바닥을 발바닥으로 밟던 것이다.

그때였다. 우녀가 슬픈듯이 한 마디 내뱉었다.

"저 배에만 송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섬에도 송장이 풀이나 있게 되다니..."

이 말에 인담이 다시 한번 끈목을 치르는 것처럼 마음 속으로 난감해 하였다. 도대체 누가 죽는다는 것인가. 하나도 아니고 풀씨나 죽는다니 그가 누구누구란 말인가.

그는 우녀의 그런 예지(豫知)가 그녀의

불식(午後不食)을 지킨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운판 따위 소리를 낼 까닭이 있다면 다른 일 때문이겠다.

사후선의 일로 하루가 뒤숭숭 하였다. 날마다 이어가는 일과도 어긋나버렸다.

인담은 우녀에게 '삼 안의 두 송장'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않고 그의 선방으로 갔다.

선방. 죽비 하나와 잠근죽비 하나가 그 방의 주인공이다. 벽에 옷이 걸린 것이 한쪽을 채워 그것으로 이 방이 사람이 사는 방임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방 중앙에 있는 탁발이의 불단에는 불상이 없다. 그저 작은 빈 방석만이 놓여있다. 굳이 말하기로 한다면 법상을 모셨으므로 불상이 필요없다 할 것인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마음은 있

은갖 귀신 우짖는 소리까지도 들어있을 것이다.

인담은 얇은 잠을 자고 있는데 대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며 발바닥에 굴렀다. 인담이 일어나 부시뚱을 쳤다.

대해가 피투성이였다.

"이 무슨 일인가!"

대해는 그 자신의 일보다 바깥쪽으로 자꾸 손짓을 하였다. 문을 탁 차고 나갔다.

아래쪽 별채 밑의 낮은 쪽으로 하얀 달빛과 별빛에 익숙해지지 않았인가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효영과 명오였다. 그들이 어인 일로 죽어있는 것이었다.

그림·조향숙

##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엄불사안내 : ●목조 사찰건축, 콘크리트법당 및 요사채 ●대불, 목불, 조각, 단질, 탁자, 문탁

기능직 중견 사원모집

자격 : 10년이상 사찰 및 고건축 분야에서 종사하신, 정직하고 성실한분을 (주)두풍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책임은 확실하게 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株式 二豊産業 대표 02) 432-7777 전화 02) 439-3900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보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자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